



“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” 기사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(문화일보 01면, 2025.12.10.)

< 언론 보도내용 >

- 2025.12.10., 문화일보 「청년층 절반이상 일없어 논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2025년 11월 청년층 고용률* 44.3%를 인용하면서,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‘일없어 논다’ 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
- *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 = 청년층 취업자 / 청년층 인구 * 100

< 국가데이터처 입장 >

-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인구를 취업자,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음
 -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, 가사, 재학·수강 등, 연로, 심신장애, 기타(쉬었음 포함) 등으로 활동상태가 다양함
 -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재학·수강 등(정규교육기관, 입시학원, 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통학)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
 - 따라서, 취업자가 아닌 청년층 인구 전체를 “일없어 논다” 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	책임자	과 장	송준행 (042-481-2264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직 (042-481-2265)